

【국 어】

1. 다음 중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 ② 관형어와 부사어는 수식 성분이며 주성분으로 분류된다.
- ③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하여 모음 조화의 예외가 많지 않았다.
- ④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ㄹ, ㄷ, ㄱ, ㄴ 11개가 인정되고 있다.

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빈 속은 칼로 에이는 것처럼 쓰렸다.
- ② 그녀는 프랑스어를 혼자서 깨쳤다.
- ③ 게으름을 피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 ④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을 꼬박 새다.

3.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의 표현이 가장 올바른 것은?

< 보 기 >

우리는 언어생활에서 문법요소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다. 높임법에서 높이지 않을 대상을 높이는 경우, 시제 표현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잘못 쓴 경우, 피동 표현에서 이중 피동 형태를 사용한 경우, 사동 표현에서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을 쓴 경우가 대표적이다.

- ①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시는구나.
- ②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벌써 갔는 모양이다.
- ③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시켜 줄래.
- ④ 저는 그 말씀에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4. 다음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적용된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 ① 이 지역에 내래월(來來月)까지 비가 온다고 한다.
- ② 그의 이론은 현실적으로 볼 때 비논리적(非論理的)이다.
- ③ 멀리 격리되어 몇 달 동안 중노동(重勞動)에 처함을 어찌 면하겠나?
- ④ 육십을 갓 넘겼는데 그의 얼굴은 칠십의 상노인(上老人)같이 늙어 보였다.

5. 다음 <보기>의 ㉠~㉣의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바퀴가 빨리 돈다.
- ㉡ 모은이가 복숭아를 집었다.
- ㉢ 목걸이가 주아에게 어울린다.
- ㉣ 세은이가 노래를 예쁘게 부른다.

- ① ㉠: ‘...가 돌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 ‘...가...을 집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 ‘...가...에게 어울리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 ‘...가...를...게 부르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6.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식·미 가·픈·므·른 ·ㄱ·ㅁ·래 아·니 그·출·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용비어천가』 제2장-

- ① 형용사는 ‘그출씩’이다.
- ② 조사는 ‘이’, ‘은’, ‘애’이다.
- ③ 명사는 ‘심’, ‘물’, ‘ㄱ물’이다.
- ④ 모두 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표시 없는 곳도 포함함.)

- ① 너는√너√대로√나는√나√대로√서로√열심히√일하자.
- ② 지금으로부터√십여√년√전에√이√마을에√사람이√살았다.
- ③ 내가√감당할만한√능력이√없는√것을√알게√되자√막내√마저√떠나는구나.
- ④ 비행시에는√휴대 전화를√사용하면√안√된다.√이를√어졌을 시에는√처벌을√받는다.

8. 다음 단어의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은?

- ① 묵호: Mukko
- ② 알약: allrak
- ③ standard: 스탠다드
- ④ Teletype: 텔레타이프

9.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 ①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잘 생겼데?
- ② 우리는 매일 숙제가 왜 이리 많덴?
- ③ 어제 보니 네 친구 공부 열심히 하덴.
- ④ 친구들이 전해주길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덴.

10.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나에게 돈을 맡기고[마끼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② 그는 이 문서를 통해서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발켄따].
- ③ 바닷가에 도착한 아이들은 모두 아홉이 아닌 여덟이다[여덜비다].
- ④ 그녀는 그만들지언정[그만둘찌언정] 우리에게는 일을 하도록 했다.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 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玉洋木)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가) 발은 감발을 하었는데 쥔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 말도 곧잘 철철 대이거니와 중국 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중략)

“이야기를 다하면 무얼 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 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머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나) 벗섬이나 나는 전토(田土)는 / 신작로(新作路)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 유곽으로 가고요—

11. (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며 독자와의 거리는 멀다.
- ②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제시하며 독자와의 거리는 가깝다.
-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진행하며 인물과의 거리는 멀다.
- ④ 서술자는 외부 관찰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달하며 인물과의 거리는 멀다.

12.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대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민요 가락을 빌어왔다.
- ② 이 소설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 ③ 미개발된 농토를 개발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 ④ 비판적 지식인을 탄압하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이 드러난다.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승(女僧)은 합장(合掌)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⑦쫄쫄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㉔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㉔산(山)땡도 설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13. 이 시의 주된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너 씨인 제,
사공(沙工)은 어디 가고 빈 비만 밟혔고.
석양(夕陽)에 딱 일흔 굴머기는 오락가락 흐노매.
- ② 집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돌 도다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르망정 엇다 말고 내여라.
- ③ 두터비 푼리를 물고 두힘 우회 치드라 안자
것년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썬 잇거늘 가슴이 급
즉하여 풀덕 썬여 내뒸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넌 널식만정 에혈질 번 흐패라.
- ④ 맥(宅)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랴
웨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 후행(前行
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스 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하렘은.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쓸쓸했던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② ㉡: 여인의 힘겨운 삶을 공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③ ㉢: 부지런한 남편을 원망하는 여인의 심리가 드러난다.
 ④ ㉣: 여인의 슬픈 감정을 산경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15. 다음 <보기>의 고사와 관련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당나라 현종은 재위 초기에는 정치를 잘하여 칭송을 받았으나 점점 주색에 빠져 정사를 멀리했다. 이임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황제의 비위를 맞추면서 충신들의 간언이나 백성들의 탄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며 조정을 떡 주무르듯 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나 아닌지 두려워하며 가차없이 제거했다. 그것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한 강한 수법은 쓰지 않고 황제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얼굴로 상대를 한껏 추켜세워 자리에 앉혀 놓은 다음, 음모를 꾸며 떨어뜨리는 수법을 썼다. 이임보가 깊은 생각에 잠긴 다음 날은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는 자가 반드시 생겼다.

- ① 勸上搖木 ② 蚌鷸之爭
③ 羊頭狗肉 ④ 綿裏藏針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님 온다 / 형님 온다 / 분고개로 /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을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족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세.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 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겼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16.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렴이 없는 4음보 연속체 민요이다.
- ② 고된 시집살이를 익살과 해학으로 표현했다.
- ③ 과장, 대구, 은유, 언어유희의 표현기법이 쓰였다.
- ④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려 자기 반성적 태도가 나타난다.

17. 이 노래를 연극으로 각색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집간 형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동생의 모습
- ② 둥글게 생긴 작은 밥상에 어렵게 상차림을 하는 모습
- ③ 울고 있는 여인 뒤에서 몰래 다독여 주는 남편의 모습
- ④ 뺨뺨한 머리칼을 만지며 결혼 전 자신을 상상하는 모습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의 디지털 문명은 로마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로마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글처럼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 디지털 문명에 가장 잘 적응하는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이 디지털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편리한 문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타자기 시대에 한글은 한자나 가나와 같은 음절 문자보다 기계화에 ㉡유리한 점이 분명 있었지만 ‘모아쓰기’라는 ㉢창제 당시의 표기법 때문에 로마자 타자기의 효율성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풀어쓰기’ 주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병아리’를 ‘ㅃㅇㅇㅇㅇㅣ’로 풀어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디지털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아쓰기’를 자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8.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로마자는 유리하다.
- ② 한국은 한글을 통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 ③ 풀어쓰기는 모아쓰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④ 모아쓰기를 구현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풀어쓰기 주장은 사라졌다.

19. ㉠~㉤을 한자로 표기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碁盤 ② ㊬: 有利
③ ㊣: 唱題 ④ ㊤: 俱現

20. 다음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김생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디서 왔느뇨?”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나이다.” “부모 봉양 왔으면은 물값 가지고 왔소? 나뭇값 가지고 왔소?” “충망 길에 잇었나이다.” “물 삼 년 길어 주소, 불 삼 년 때어 주소, 나무 삼 년 베어 주소.” 석 삼 년 아홉 해를 살고 나니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되어 보이니, 그대하고 나하고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어 일곱 아들 산전바더주고 가면 어떠하뇨?” “그도 부모 봉양할 수 있다면은 그리하성이다.”

- ① 윤횑뚱이 ② 트레바리
③ 오그랑이 ④ 만수받이